



광주 출신 '하얀나비' 가수 김정호 추모음악회 열린다



하남석

'음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은/ 음 그리워 말아요 떠나갈 날인데/ 꽃잎은 사들어도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피듯 서러워 말아요.'

1973년 '하얀나비'로 가요계에 데뷔한 후 '이름 모를 소녀'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김정호가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꼭 30년이 된다. 1952년 광주에서 태어난 그는 1985년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서른 셋 젊은 나이였다.

'고독한 여자의 미소는 슬퍼', '빗속을 돌아서' 등 수많은 히트곡을 직접 만들고 부른 그는 듀오 '어니언스'의 대표곡 '사랑의 진실', '작은 새', '저별과 달을' 등을 작사·작곡하기도 했다.

또 담양 출신 판소리 명창 박동실(1897~1968)의 외손자이자, 아쟁 명인 박종선의 조카인 그는 '남' 등의 노래를 통해 가요에 국악적 요소를 접목시키기도 했다.

김정호를 기리는 추모음악회 '2015 하얀나비 김정호'가 열린다. 광주에서는 한국가수협회 광주지회와 지역 뜻있는 인사들이 올 초부터 '김정호 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 김씨가 태어난 북동성당 일대를 김정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는 김정호가 광주 출신 음악인이란 사실을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행사를 꾸리며 내년부터 광주시, 북구청 등과 함께 본격적으로 도심 재생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음악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광주 수창초등학교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김정호는 2학년까지 수창초등학교를 다녔었다.

하남석·어니언스·유심초 등 참여

2일 김종률·김원중·임창제 등

김정호 거리 추모 토론회도

할 계획이다.

음악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광주 수창초등학교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김정호는 2학년까지 수창초등학교를 다녔었다.

오후 2시부터 강명진의 전자바이올린 공연을 시작으로 이번 행사를 주관한 대한가수협회 광주지회 소속 가수들의 공연 '부르는 노래 그리운 사람'이 펼쳐지며 김정호의 삶과 음악 세계를 담은 추모영상화 등이 이어진다.

오후 6시 30분 부터 열리는 본 공연에는 김정호와 오랜 인연을 나눴던 동료가수들이 함께한다. 먼저 떠난 후배를 위해 다양한 추모 공연을 열어온 하남석을 비롯해 어니

언스, 신계행, 유심초, 소리새, 하성관, 강승식 등이 출연하며 젊은 세대 음악인인 여우별밴드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한편 공연 전인 오는 2일 광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는 '도시 재생 차원의 하얀나비 김정호 거리 추모 음악회를 위한 토론회'도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종률(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창원(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총괄 기획), 김원중(가수), 임창제(가수), 반재신(광주시의원), 정기석(조선대 교수)씨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김정호의 음악에 대해 집중조명한다.

행사를 주관한 대한가수협회 광주지회 김수일 사무국장은 "올해 토론회와 음악회를 통해 김정호라는 가수가 광주의 큰 자산을 알릴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북동성당 인근 생가 터 등에서 거리 음악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010-3611-20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 축제·공연 계속되는 문화광장으로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이 입주한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가 축제와 공연을 비롯한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리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광주 문화재단(문화재단)은 "재단 창립 5주년(2016년 1월13일)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예술 청년작가 공모전, 문화경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재단은 이 행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 설립된 재단의 5년간 활동을 돌아보고 현재 진행 중인 '문화동10000 운동'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인 공공예술 청년작가 공모전 '공간 스토리두잉(Story Doing)'은 재단이 입주한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를 스토리가 담긴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공공 예술 공모전을 통해 옛 구동체육관·전남체육회관 등 기존 이름으로 불리는 이 공간을 축제·공연 등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이 꾸준히 펼쳐지는 광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재단측은 이를 위해 10월23일까지 작가(5명)를 모집하며 오는 10월 5일 오후 4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늘은 우리가 보듬어 드림(Dream)'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문화예술위탁품 경매' 프로그램은 문화 예술 관련 물품을 위탁받아 사전 전시하고 경매로 판매하는 행사다. 경매 위탁품 모집은 10월1일~12월1일까지. 상설 판매 및 경매를 통한 수익금은 위탁자 이름으로 전액 기부되어 재단의 기금으로 적립된다.

공모전·경매 관련 문의 062-670-5750~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중·장년층 대상 '병태씨와 고래사냥' 참가자 모집

노후를 고민하거나 가족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가정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시범운영하는 아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병태씨와 고래사냥'이 50~60대 남성 참가자 15명을 모집한다.

'병태씨와 고래사냥'은 모두 8차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10월7일~11월18일(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정자씨와 재봉틀'이

엄마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었다면 이번 프로그램은 중장년 가정을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역할극, 소통의 기술, 요리수업과 여행, 졸업식 등으로 짜여졌다.

주말 문화예술교육공동체 연나무 대표를 비롯해 강동호 정혜경, 김성호, 이미경, 조재형, 심미광, 송찬준 씨 등 전문강사가 참여한다.

참가자 모집은 10월2일까지며 최종 참여자는 10월5일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창' 33호 특집, 청년문화기획자의 길을 묻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발행하는 문화담론 계간지 '창' 33호가 나왔다.

이번호 특집은 '진정한 청년문화기획자의 길을 묻다 - 광주 청년문화기획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광상희(광주시 청년인재육성과), 광규호(광주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강수훈(스토리박스 대표), 김도일(조선대 초빙교수)씨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윤영덕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시민사회 싱크탱크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지적 등 지역 문화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야기를 '문화화단'

코너에 실었다.

서 일 권 광주청년센터 대표의 'The 숲', 장복동 전남대 교수의 '광주시

민자유대학',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의 '광주와 플로키움'을 비롯해 오는 15일 열리는 2015광주디자인엑스포에 대한 지적 등 지역 문화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야기를 '문화화단'

/김홍희기자 kimhy@

'문화'가 광주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문예지 '문학들' 41호, 지금 '광주'란 무엇인가 특집



지난 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부분 개관을 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과연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문화'가 광주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광주에서 발행되는 대표 문예지 '문학들'(가을호·통권 41호)이 '지금 '광주'란 무엇인가?'를 특집으로 문화도시 '광주'의 정체성과 위치를 내밀하게 들여다보았다. 문화

가 광주를 재창조하는 주요한 수단과 방법이 된 지금, 광주의 방향성과 지역성 등을 다각도로 조명한 전문가들의 글이 눈에 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김기곤 연구위원이 '문화도시 광주'의 탄생과 굴절, 그리고 지향'을 주제로 문화도시 광주

의 의미와 가능성, 과제들을 분석한다. 전남대 5·18연구소 박경섭 연구교수는 '기억과 망각, 그리고 재생-문화도시에서 지역성'을 통해 문화예술프로젝트와 광주의 변화, 지역성을 이야기한다.

'작가들의 문학사'에서는 정지돈 작가가 '좋은 책은 찾기 힘들다'를 주제로 어떤 작품을 읽고, 쓸 것인가를 말하며 김도연 작가는 '지역과 한국문학'에서 '강원과 한국문학'에 대해 풀어낸다.

사물'에서는 윤대녕 작가가 '벤치'에 깃든 단상을 특유의 유려한 문체로 소개하며 소수자의 삶을 다룬 이야기 '들'에는 남마공동체 대표 김자균씨가 '그래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경험을 짚조각해 들려준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나는 몸신이 이다

이홍식 엄영란

조인희 변우민

MC/정은아

CHA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